

생명을 위한 사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공유산과 불임 수술에 관한 담화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중요성, 인공 유산의 죄악, 불임수술의 오도, 산아 제한의 오용, 정부의 차별적 제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 주교회의가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입장을 이미 십여 차례나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개정된 헌법에도 인간 생명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없고, 온갖 차별적 시책을 없앤다고 하나 산아 제한에 관한 차별 시책은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으며, 많은 태아들을 계속 살해케 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을 불임 수술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과 양심적인 모든 국민과 특히 정부 요인들에게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인공유산

모체 안에 있는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을 지닌 개별적 사람이므로 그 태아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분명 살인죄입니다. 개별적인 새 사람은 생명을 전달받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절대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이며 발육하고 자라기만 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잉태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병든 사람들과 노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생명에 대한 권리입니다. 인간생명권을 인정치 않는 한 다른 인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생명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일이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인구조절로 부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연법에 맞는 방법이나 자원개발, 이민 정책 등 건전한 방법으로 인구 조절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무리 어렵고 또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인구조절을 도모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 또는 어머니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이미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지 못하듯이, 방금 잉태된 태아도 고의적으로 죽여서는 안됩니다. 임신과 관련되지 않는 병이나 또는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하여 위독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나 수술로 태아의 희생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긴급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태아를 고의로 죽여서는 안됩니다. 아기가 죽게 되는 것과 아기를 일부터 죽이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루프를 사용하는 것도 피임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잉태된 태아를 자궁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지금 국법에 따라 인공 유산이 한정된 조건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임신 7~8개월의 태아까지도 쉽게 유산시키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중대한 이유 없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 있는 태아를 부당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사업의 최고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모든 의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전심전력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병원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병원은 유산시킨 태아들을 산 채로 그 옥상에 놓아 여름이면 햇볕에 화형시키고 겨울이면 얼어죽게

한다는 말까지 나도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년에 인공 유산 건수가 1,200,000건이 되고, 루프로 유산시키는 건수까지 합하면 일년에 적어도 2,000,000건 이상의 인공 유산을 행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세계 역사상 전쟁으로 인해 한 나라에서 한 해에 2,000,000명이 죽은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적어도 2,000,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고의로 살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처지에 이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습을 타파해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입니다.

헤로데 왕을 닮은 독재 정부와 돈만을 위해서 사는 의사들이 무제한으로 어린 아이들을 살해할지라도, 우리 양심적인 부모들만은 하느님께 받은 귀한 아기들을, 부부 사랑의 결실인 아기들을 감사히 받아들여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기들, 부모의 사랑으로 생기는 아기들은 하느님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할 권리를 가졌으므로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죄 없이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까.

2. 정부의 차별적 시책

정부는 산아 제한에 있어서 여러 해 전부터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불임수술을 받는 자들에게 배풀어지는 특혜는 공공 기관에서의 승진, 거주지 선택 우선권, 면세, 의료혜택, 교육 혜택에서 금전상의 혜택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게는 벌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생식 기능을 상실한 불구자들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생명들을 경제 발전의 제단 위에 희생시켜야만 합니까? 이러한 정부 시책은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대우일 뿐만 아니라 진정 양심의 박해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위락 시설과 숙박 및 접객 업소

등에 피임기구들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있어 피임기구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여가선용, 오락 그리고 잠자는 일까지도 이렇게 저속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양심의 억압과 무죄한 자들의 죽음으로 공공의 안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부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재정 후원을 하는 국제 조직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리 민복을 추구하여야 할 행정부의 시책이 고작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3. 자연적인 가족 계획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톨릭 교회는 자연적 가족 계획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인 조사 검증 과정을 거쳐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이므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거나 신앙을 지니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 주기에서 더구나 불규칙한 주기를 지닌 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유로운 방법이며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안전합니다. 오직 배우자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대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얻어 상부상조하며 사랑과 대화 속에서 이 방법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약속드립니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가족 계획의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우리와 논의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얻은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적 가족 계획 방법이 정부의 감독 하에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기를 기꺼이 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신앙인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은 신앙의 실천으로써 받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을 순교정신으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대우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에 견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가정이 인간 사회와 교회의 근본임을 깨달아, 가정의 성화와 가정의 권리 현장의 구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풍요로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89년 5월 8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8면에서)

마찬가지로 중립 입장은 이 한가지 점에 있어서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즉 인간이 존중되지 않으면 노예로 전락되고 맙니다.

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생명 특히 가장 가련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명에 봉사하는 가운데서, 모든 인간 존재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느님의 사랑 자체를 계시하는 증거하

는 자로서 수행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인식과 긍지를 절대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원문 : Holy Father's address to Pro-life Congress, "Every human life is sacred and inviolable", *L' Osservatore Romano*, N.26, 26 June 1989, 6면 번역 : 대구 가톨릭 대학 최영철 신부)*